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5
AUTUMN
제73호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살이 리얼톡
글로벌 도전은 계속된다
아누팜 트리파티

출입국 탐구생활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장정우 주무관의 하루

출입국 in FOCUS
결핵 퇴치에서 공존의 길로
대한결핵협회 외국인지원사업단

출입국 ON AIR
광복 80년, 영웅과 후손을 잇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밤은 어느새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가을호에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8월 12일,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체류기간이 경과된 동포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해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우리 본부는 외국인 방문객과 체류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비즈니스 전용 심사대를 운영함으로써, 외국 국적 기업인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과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을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체류외국인과 동포, 국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아, 바쁘게 달려온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 친지들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며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Dear readers,

The sweltering summer nights are behind us, and we now stand at the threshold of a refreshing autumn. This autumn edition is filled with a variety of stories we're excited to share with you.

This year marks the momentous 80th anniversary of Korea's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2,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KIS) hosted a nationality conferment ceremony to grant citizenship to the descendants of independence activists and to honor the noble spirit and sacrifice of their forebears. In commemoration of Liberation Day, we also implemented a Special Legalization Measure for Overseas Koreans, granting legal stay status to compatriots who had overstayed their permitted period—an effort to foster national unity.

In addition, the KIS has implemented variou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duce inconveniences for foreign visitors and residents. Since August 31, a dedicated Business Immigration Screening Lane has been in operation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streamlining the entry process for foreign businesspeople and promoting greater exchange with domestic companies. Furthermore, foreign workers who are victims of unpaid wages are now exempt from the obligation of government officials to report undocumented individuals. This change strengthen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rotecting labor rights and advancing human rights. Additionally, from September 29 until June 30 of next year, we will temporarily permit visa-free entry for Chinese group tourists—an initiative aimed at revitalizing the tourism industry and supporting the recovery of local economies.

Looking ahead, the KIS will remain committed to advancing policy support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imed at building an inclusive society where foreign residents, overseas Koreans, and Korean citizens live together in harmony.

As the Chuseok holiday approaches, we hope you take a moment to step away from your busy routines, share warmth with family and friends, and enjoy a prosperous and bountiful holiday season.

Thank you.

Director-General for Immigration Policy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Jeong-do
Kim**

CONT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5. AUTUMN / VOL. 73

통권 73호(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5년 9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02-2110-4019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KIS+pecial

- 06 한국살이 리얼톡
‘오징어 게임’을 넘어, 글로벌 도전은 계속된다
(인도 출신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
- 10 출입국 탐구생활
장정우 주무관의 하루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14 쉼표 여행
단풍과 호수가 빛어낸 춘천의 풍경
- 18 감동 한 스푼, 행복 두 스푼
재한 외국인 & 직원 미담 사례

06



26



K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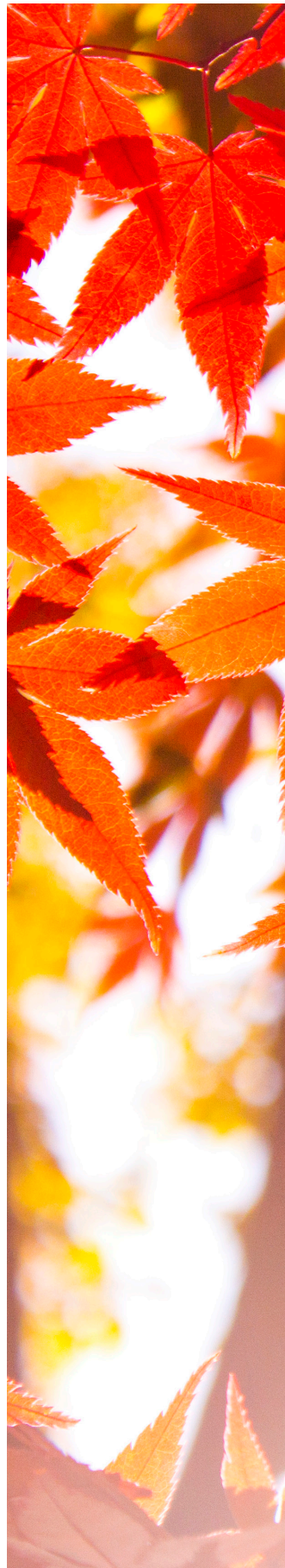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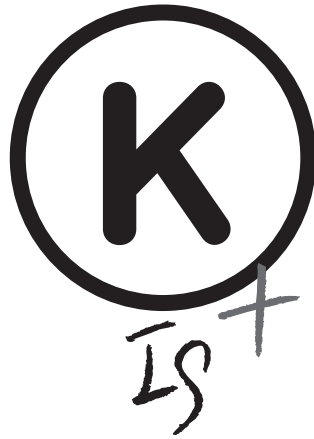
- 20 출입국 in FOCUS
대한결핵협회 외국인지원사업단
- 24 정책 한눈에 쏙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
- 26 출입국 ON AIR
광복 80년 영웅과 후손을 잇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 30 공감 돋보기
외국인이 꿈은 한국 여행의 매력
- 32 세계인의 밥상
맛의 융합, 정체성의 공존
‘아메리칸 푸드’를 다시 보다

KIS+hare

- 34 이슈 Pick
출입국·외국인 정책 주요 뉴스
- 36 출입국 궁금타파
출입국·외국인정책 Q&A
- 38 SNS 핫클릭! + 독자 이벤트
본부 SNS 채널 / 독자 참여 코너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풍이 마음을 두드릴 때

고요히 단풍 빛으로 온 세상이 물드는 계절, 가을이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단풍은 나무가 고이 간직해 온 자기 안의 빛을 꺼내 보여주는 일.

황금 들녘이 바람결에 일렁이고, 유난히 투명한 하늘은 하루의 끝을 길게 붙잡아 줍니다.

천천히 익어가는 계절엔 작은 안부가 큰 위로가 되고,

고운 배려가 오래 남습니다.

단풍 빛이 한창인 가을, 당신의 일상에도 알록달록 단풍 한 줌을 담아보세요.

바스락— 발끝에서 시작된 색이 마음까지 번져갈 거예요.



अनुपम त्रिपाठी

‘오징어 게임’을 넘어, 글로벌 도전은 계속된다

인도 출신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외국인 배우가 있다. ‘알리’ 역할로 더 잘 알려진 인도 출신 배우 아누팜 트리파티. 한국살이 15년째를 맞은 그는 배우이자 창작자로서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흥미진진한 순간들이 넘치는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자.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글로벌 인기 시리즈이다. 시즌 3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는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오징어 게임 배우’라는 타이틀은 누가 뭐래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질 만하다. 아누팜 트리파티(이하 아누팜)는 시즌 1에서 애달픈 서사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 역할을 맡았다. 그의 섬세한 감성 연기는 많은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저 배우 누구야?’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사실, 그는 이미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천만 배우’라고 불릴 만큼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한 경력이 있는 배우다. 영화 〈국제시장〉, 〈력키〉, 〈아수라〉,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였다.

“〈오징어 게임〉처럼 비중 있는 역할의 대본을 받았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엑스트라나 단역을 많이 했죠. 하지만 어떤 역할이든 다 재밌어요. 대본 속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연구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워요. 연기를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싶다는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오징어 게임〉의 인기는 고향인 인도까지 전해졌다. 인도에서 넷플릭스 1위를 차지한 최초의 한국 작품이 〈오징어 게임〉이다. 지금도 인도에서 한국 작품이 1위를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아누팜이 출연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고향인 인도에서 제가 유

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는 유명인으로서 인기보다는 차분히 내실을 다지는 연기자의 삶을 택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할 때쯤, 그는 더 폭넓은 연기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연기의 길, 꿈을 향한 한국으로의 비행

아누팜이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특별한 장학금 제도 덕분이다. 바로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의 AMA+(Art Major Asian plus) 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은 매년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에서 우수한 청년 예술가를 20명 내외로 선발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예종 학·석사 과정의 학비 전액, 입학 전·후 한국어 연수, 생활비, 의료보험 등이 제공된다.

아누팜은 AMA+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010년 10월 22일 낮 12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아누팜에게 한국은 첫 비행의 목적지이자, 첫 외국이었다. 그날 처음 마주한 한강과 햇살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장학생에 선발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다. 인도에서 이미 연기와 노래, 성우 등 다양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던 아누팜에게 공부를 우선하라는 부모님과 친척들의 성화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장학금을 받으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래 준비했어요. 반대하시는 마음도 이해는 했지만, 연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눈물이 나도 스스로 다독이며 열심히 준비했죠.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했기에, 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누팜이 장학생에 선발되자, 온 집안이 난리가 났다고 한다. 장학금을 받아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건 꿈만 같았지만, 뜻밖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학생 선발을 위한 면접이 영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수업도 당연히 영어로 진행될 줄 알았지만,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진행된 것이다. 그때까지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 했던 아누팜의 한국어 극복기는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경희대와 한국의 대를 오가며 한국어 수업을 들었고, 식당 아주머니들부터 친구, 선배, 동생까지, 만나는 모든 이를 선생님 삼아 공부에 매진했다. 한국어를 잘해야만 연기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섬세한 연기를 배우기 위해 온 유학이니만큼 언어에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매일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들었던 이야기를 거울 앞에서 혼자 되뇌며 한국어를 계속 익혔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언어 공부도 연기를 배우는 것처럼 재미있고 신나게 즐기자고 마음먹었죠.”

아누팜이 전하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아누팜의 한국어 실력은 눈을 감고 들으면 한국인이라 해도 믿을 만큼 탁월하다. 그럼에도 말은 역할에 따라 다르게 한국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점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 역할을 맡았다면 그에 맞는 발음과 톤을 연구한다고 한다.

“외국인 노동자 역할이라도 각기 다른 작가가 그려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인물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 역할을 좋아합니다. 그 캐릭터가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도 즐겁고요. 그런 부분들을 배우로서 극에서 잘 풀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최근 출연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에서 맡은 외국인 노동자 역할은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 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가 흔하면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누팜은 “이제 이민자에 관한 이야기가 없는 작품은 거의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그 변화를 느끼고 있다.

아누팜이 인도 출신의 한국 배우로서 자리 잡은 모습은 또 다른 외국인 배우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도전이지만, 명품 배우로 자리매김해나가는 그의 모습은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국에는 주먹밥을 나누는 문화가 있잖아요.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그런 문화가 정말 좋다고 느껴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내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채우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서로 공존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연기의 힘으로 전하는 공존의 메시지

아누팜은 인사할 때 늘 ‘안녕하세요’와 ‘나마스떼(नमस्ते)’를 함께 사용한다고 한다. 인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누팜에게는 두 나라가 그의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인도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제 안에서 섞여 있어요. 두 나라가 함께 있다는 것이 큰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거리에서 만나는 할머니, 아저씨, 꼬마 팬들 모두 미소로 저에게 힘과 영감을 줬어요.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해요.”

아누팜은 여전히 하고 싶은 연기가 많다고 말한다. 특히 한국 사극에 관심이 많아, 여러 역할을 연구하고 습득하며 준비해왔다고 한다. 아누팜이 연기하는 사극이 벌써 기대된다. 그의 이름 아누팜은 인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름처럼 ‘비교불가’한 배우로 우뚝 선 아누팜 트리파티. 그의 첫 주연 영화 <검은 령>이 부천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지난 8월 개봉되었다. 아누팜이 한국, 인도, 그리고 더 큰 글로벌 무대에서 멋진 꿈을 펼쳐나가길 응원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 SUWON IMMIGRATION

경기 남부 이민행정의

든든한 파수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증 심사관 장정우 주무관

경기도는 전국 광역자치체 중 외국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러한 경기 남부권을 관할하며, 외국인의 입국·체류·자격변경·연장허가 등 체류관리 전반은 물론, 사증 심사, 불법체류 단속, 강제 퇴거, 난민심사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사증 심사를 담당하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얼굴로 활약 중인 장정우 주무관 그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08:00AM

힘찬 하루를 여는 출근길



안녕하세요~!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 사증팀에서 E-9(비전문 취업) 접수 및 다양한 사증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장정우 주무관입니다. '사증(Visa)'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그 입국 허가 신청에 대해 입국을 추천하는 증서입니다. 국내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는 고용주 등 국내 초청자가 신청한 사증 발급신청서를 심사하고 발급하고 있으며, 해외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사증발급신청서를 바탕으로 외국인의 비자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증발급신청서의 심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활기찬 하루를 함께해 주세요~!



08:30AM

업무 전, 동료들과 짧은 담소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 팀원들과 가볍게 담소를 나누며 오늘의 특이사항을 확인합니다. 사증 심사 업무는 대부분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검토하거나, 민원인을 직접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늘 긴장감 속에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 아침 시간에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사무실을 천천히 돌아다녀요. 동료들과 웃으며 한두 마디 나누다 보면 긴장도 풀리고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바쁜 날에는 자리에 앉아 하루 업무를 정리하거나 우선순위를 점검하면서 조용히 집중 모드로 들어가기도 해요.



09:00AM

사증발급신청서 접수

업무 시간이 시작되면, 사증 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하나둘 접수 창구를 찾습니다. 민원인이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먼저 필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었는지 확인한 뒤, 시스템에 입력하고 접수증을 발급해 드려요. 사증은 체류 기간, 입국 목적, 체류 자격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제출 서류도 달라서 민원인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땐 최대한 친절하게,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며,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연락을 드려 보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5:00PM

사증발급인정서 심사 업무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증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만큼 오늘도 바쁜 하루가 이어지고 있어요. 민원인 방문이 줄어드는 시간에는 접수된 사증 심사 업무가 진행되는데요. 사증발급인정 신청의 경우 대면 접수보다 온라인 접수 건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민원인 입장에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접수 방식은 다르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 심사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접수된 서류를 정리하고 전체 현황을 파악한 뒤, 심사 우선순위와 일정을 계획합니다. 이어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 서류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본 후 제출 자료를 토대로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으면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신 분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한번의 사증 발급에만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셔야 해요!



12:00PM

오후 업무를 위한 에너지 충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소속 기관으로,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의 현장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증 접수와 발급은 매우 중요한 업무에 속합니다. 오전 내내 민원인을 응대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지치고 긴장감도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는 든든한 점심 식사와 동료들과의 소소한 대화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아직 근무를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수원청의 모든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덕분에 매일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19:00PM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적응 도우미를 꿈꾸며 퇴근

저녁이 되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에 들어갑니다. 사증 심사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외국인을 만나왔습니다. 운동선수나 방송에서 보던 외국 국적 연예인의 사증을 발급해본 적도 있었고요. 외국인 민원인뿐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내국인 고용주를 상대하는 일도 많아,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배울 것도, 경험해야 할 것도 많은 신입 직원이지만, 제가 하는 일이 수많은 외국인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일이라는 사명감을 늘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만난 사람들 •

‘정확하고 신속한 도움을 건넬 수 있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고 멋있어 보여 출입국관리직을 선택했는데요, 지금은 국제 교류와 국가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에서 누구보다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체류팀 민원창구에서 외국인 체류 관련 다양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민원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때입니다. 출입국 업무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중요한 영역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업무를 경험하고 전문성도 키워 민원인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사과]
김혜인 주무관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한마음으로 수행하는 임무!’

저는 노어노문학과를 전공하면서 러시아인, 고려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경험이 매우 인상 깊었고, 자연스럽게 출입국관리직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조사과에서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처음 현장에 나갔을 때,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고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전문성과 신뢰를 갖춘 공무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가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출입국관리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20년 후, 출입국 행정의 베테랑이 되고 싶어요’

중국어를 전공하며, 제 언어 능력을 어디에서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법질서를 지키는 출입국관리직이 제게 꼭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국내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사범처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한 웃음을 짓는 민원인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저 역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출입국 업무 전반을 두루 경험하며 전문성을 키워가고자 합니다. 20년 후에는 “출입국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누구보다도 믿음직한 출입국관리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범과]
강예송이 주무관



단풍과 호수가 빛어낸 춘천의 풍경

호반의 도시 춘천. 호수는 황금빛 노을을 품고, 산과 숲은 단풍으로 물들어 도시 전체가 계절의 화폭이 된다. 이 낭만적인 도시 한켠에는 외국인과 지역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자리하고 있다. 가을이 가장 아름답게 머무는 곳, 잠시 스쳐 지나도 마음에 오래 남는 가을의 도시, 춘천의 매력을 함께 들여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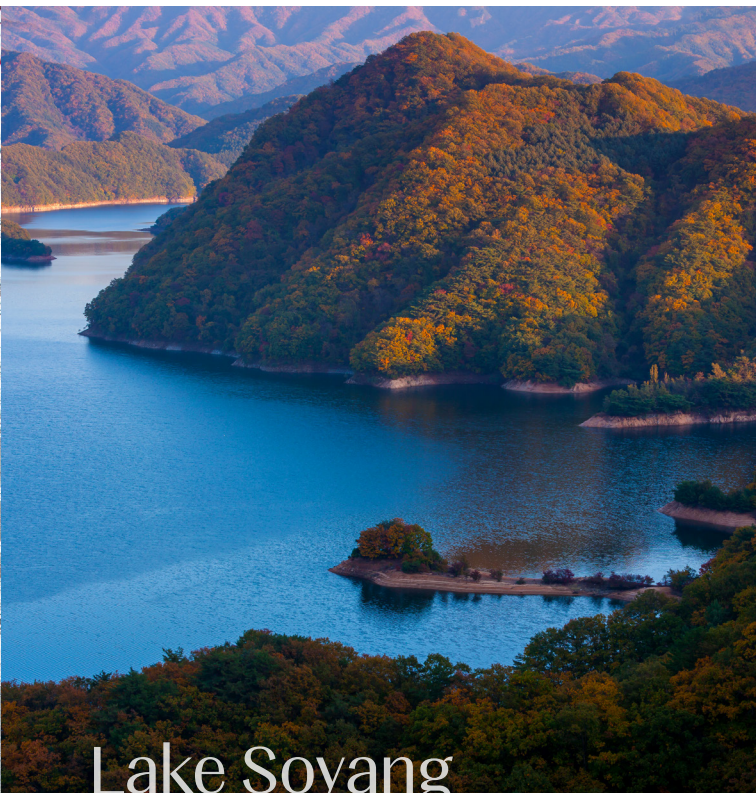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소개합니다!

강원지역(18개 시·군) 거주 외국인의 체류관리, 비자 발급, 국적, 조사, 사회통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인 동해출장소와 속초출장소를 통해 동해항·속초항·양양국제공항 출입국심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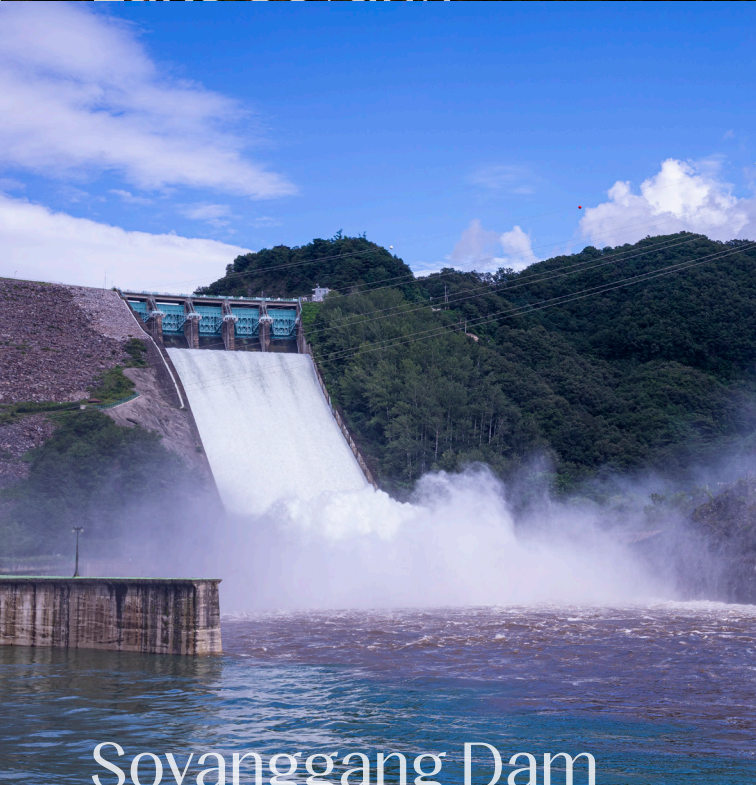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학곡리 29-1)

◆ 문의: ☎ 033-269-3210





Lake Soyang



Soyanggal Dam

소양호와 소양강댐, 춘천을 상징하는 가을의 풍경

춘천을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는 단연 소양호이다. 유람선을 타고 둘러볼 수 있는 이 호수는, 가을빛으로 물든 풍경을 수면 위에서 바라볼 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잔잔히 일렁이는 물결 사이로 단풍잎이 흘러내리고,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고요한 풍경은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든다. 특히 해 질 무렵, 호수 위에 붉게 번지는 노을은 많은 여행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머무르게 만드는 장면이다. 도심에서 멀지 않아 접근성도 뛰어나지만, 가을빛에 물든 이곳에서라면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호수와 계절이 건네는 여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은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 댐으로, 오랜 시간 춘천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댐 위에서 서면 탁 트인 하늘과 호수가 맞닿은 장대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며, 가을이 되면 그 풍경은 한층 더 깊고 그윽해진다. 호수를 둘러싼 산자락은 붉고 노랗게 물들고, 그 단풍빛이 수면 위에 비쳐 마치 수채화처럼 일렁인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조차 호수의 일부가 되어 계절의 고즈넉한 정취를 더한다.

수채화처럼 물든 소양호의 가을

소양호를 마주하면, 가을빛으로 곱게 물든 호수와 그 둘레를 감싸는 산세가 어우러져 장대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붉고 노랗게 물든 단풍잎이 수면 위에 비치면, 호수 전체가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변한다. 특히 해 질 무렵,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호수 위로 천천히 번지는 순간, 가을날 춘천의 낭만을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난이도 ★★☆☆☆

거리 약 2km 내외 / 산책 30분~1시간

코스 소양강 주차장 - 강 위 전망로 - 유람선 탑승 - 호수 전망

사계절이 낭만으로 피어나는 무대, 남이섬

춘천 여행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바로 남이섬이다.

이곳은 드라마를 통한 한류의 진원지로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는 다양한 전시회와 음악회가 열리는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섬을 가득 메운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어디를 걸어도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풍경이 펼쳐진다. 노랗게 빛나는 은행나무길은 터널처럼 이어지고, 붉게 물든 메타세쿼이아 숲길은 깊은 가을 숲에 들어선 듯한 감동을 전해준다.

남이섬은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섬 곳곳에서는 예술 전시와 공연,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방문객의 감성을 한층 풍요롭게 채워준다. 아이와 함께라면 숲속 놀이터나 자전거 체험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연인이라면 은행나무 길을 함께 걸으며 사진 한 장만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나룻배나 셔틀 보트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 여정 자체도 또 하나의 여행처럼 느껴져, 남이섬에 닿기 전부터 가슴이 설레는 시간이 시작된다.

단풍으로 물드는 낭만의 섬

남이섬의 가을은 '낭만'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 길은 터널처럼 이어지고, 메타세쿼이아 숲길은 붉은 단풍으로 덮여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감동을 안겨준다. 예술 전시를 관람하거나, 카페에 앉아 가을 풍경을 바라보며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은 남이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계절의 정취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난이도 ★☆☆☆☆

거리 섬 둘레 약 5km / 산책 2~3시간

코스 선착장 - 나룻배 - 은행나무 길 - 메타세쿼이아 숲길 - 섬 중앙 광장 - 예술 전시·체험 공간





일상 속 여유가 머무는 공간 ‘공지천과 의암호 산책길’

도심 가까이에서 가을의 낭만을 느끼고 싶다면 공지천과 의암호 산책길을 빼놓을 수 없다. 공지천은 춘천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쉼터이자, 여행자에게는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다. 가을이면 산책길을 따라 붉고 노란 단풍이 물결처럼 이어지며, 걷는 내내 계절의 정취를 전한다. 호수 위를 훑날리는 낙엽, 살랑이는 선선한 바람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가을을 만끽하게 만든다.

의암호를 따라 이어지는 산책길은 가을에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 호수 위로 드리운 단풍이 그대로 비쳐 마치 수채화 속에 들어온 듯한 풍경이 펼쳐지고, 저녁 무렵이면 노을이 호수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낭만의 정점을 이룬다. 최근 조성된 의암 스카이워크에선 투명한 유리 바닥 아래로 가을빛 호수가 내려다보이며, 색다른 감동을 선사한다. 낮에는 햇살에 반짝이는 청량한 호수가, 저녁엔 단풍과 어우러진 노을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산책길 옆으로 나 있는 자전거길은 또 다른 가을 여행의 즐거움이다. 자전거를 타고 호수를 한 바퀴 돌며 붉게 물든 산과 호수를 바라보면, 가을바람 속에서 마음은 가벼워지고 도심의 분주함은 어느새 잊혀진다.

가을 산책에 제격인 풍경

공지천과 의암호는 가을 산책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명소다. 호숫가를 따라 늘어진 단풍나무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계절의 고즈넉한 정취를 전해주며, 걷는 발걸음마다 가을의 여운이 스며든다.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감상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을바람을 맞다 보면 일상의 분주함은 어느새 잊히고 마음까지 차분해진다.

난이도 ★★☆☆☆

거리 산책로-자전거길 포함 약 4~5km / 1시간 30분~2시간

코스 공지천 입구 - 단풍길 - 의암호 수변길 - 스카이워크 - 자전거길 - 전망대

좌절을 딛고 희망을 융접하는 청년

낮선 한국 땅에서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한 정욱주 군. 이제 그는 학교의 자랑이자 후배들의 든든한 롤모델이 되었다.
그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욱주
(TRAN MINH HIEN,
베트남 출신 국적 취득자)



막막했던 한국 생활,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어머니의 격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한국어를 전혀 몰라 막막함만 가득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는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해 일주일 만에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어머니께 “너무 힘들어서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을 정도였습니다. 그 때 어머니는 “1년만 해보자. 네가 외국인인 건 모두가 이해할 거야. 꾸준히 학교에 가보자”라며 격려해 주셨고,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한 1:1 한국어 수업과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해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면서 차츰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용접의 재능, 학교의 자랑이 되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용접이었습니다. 용접은 제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열정을 다해 배우다 보니 불과 7개월 만에 출전한 대회에서 학교 최초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제 가능성을 믿어주신 선생님의 지도와 학교의 지원 덕분에 매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습에 몰두하며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자 연장을 위해 하루 결석한 것을 제외하고는 3년 동안 개근하며 책임감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적 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며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가을빛을 담은 칭찬

선선한 바람처럼 스며든 작은 배려가 우리의 하루를 따뜻하게 물들입니다.
그 마음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서로에게 단풍빛처럼 아름다운 감사 한마디를 전합니다.

홀어질 뻔한 가족의 손을 잡아주신
허욱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나이지리아인 남편의 비자가 만료돼 세 아이와 함께 꾸린 가정이 홀어질 위기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이 산가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부산출입국·외국인청 허욱 주무관님께서 저희의 안타까운 사연에 귀 기울여 주셨죠. 주무관님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의 곁을 아빠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From. MAUPETCHA OOOO ADELE 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허욱 주무관

“저의 자그마한 관심과 노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삶의 힘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생각나네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시의 한 구절처럼 한국을 선택하여 준 외국인들을 환대하겠습니다. 또 감사의 편지를 계기로 더욱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친절함과 책임감을 보여주신
최지선 주무관님을 칭찬합니다.

업무상 출입국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다 보니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의 민원을 쉽게 해결해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공무원분들을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출입국센터의 최지선 주무관님은 달랐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외국인 민원인에게 차분히 글을 써가며 설명하고, 비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민원인을 위해 경찰서와 직접 소통하며 끝까지 확인해 주시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민원인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From. 0/O준 님



대구출입국·외국인청
안동출입국센터
최지선 주무관

“먼저 따뜻한 격려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시 민원인께서 비자 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히 알려드렸고, 빠르게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저 역시 업무를 신속하게 마칠 수 있었어요. 제 작은 노력을 좋게 기억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결핵 퇴치에서 공존의 길로

대한결핵협회 외국인지원사업단



결핵 퇴치에서 출발한 대한결핵협회는 이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까지 품고 있다. 소외되기 쉬운 이들의 곁을 지키며, 숨결과 일상에서 조용히 스며드는 일이 협회의 또 다른 사명이 되었다. 2025년, 협회 산하 외국인지원사업단은 법무부로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단순한 결핵 검진을 넘어, 체류·생활·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로 역할을 확장했다.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안도와 희망을 전하는 협회의 손길은 결국 이 사회를 더 단단하고, 더 다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70년 역사의 시작, 결핵 퇴치의 길을 열다

대한결핵협회는 1953년 11월 창립 이래, 결핵의 조사·연구 및 예방·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70여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 결핵 퇴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을 비롯한 국내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1953년은 6·25 전쟁 직후로, 당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보건 문제는 단연 결핵이었다. 소설이나 드라마 속 주인공이 결핵 환자로 등장할 만큼 결핵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질병이었고,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당시 결핵 환자 수가 약 130만 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현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결핵이 지닌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했다. 시간이 흐르며 환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결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보건 문제로 남아 있다.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과거의 질병'으로 보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결핵협회는 우리나라 결핵 퇴치의 중심 기관으로서, 결핵 관리의 최전선에서 의료 현장을 이끌고 있다. 충북 오송에 위치한 결핵연구원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부와 10개의 복십자위원을 통해 검진·연구·치료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활동을 수행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잠복결핵'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40여 대의 결핵 검진 버스를 운영하며, 매년 약 18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최종현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은 “요즘 환자의 양상은 잠복결핵 환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은 당장은 전염성이 없

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쉽게 발병할 수 있죠. 그래서 협회는 전국에 40여 대의 검진 버스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이나 어촌 지역처럼 의료 접근이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대한결핵협회가 발로 뛰며 검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대한결핵협회의 또 다른 핵심 과제는 '외국인 지원'이다.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약 270만 명으로, 머지않아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핵 고위험 국가 출신으로, 입국 시 흉부 X선 판독을 받아야 하며, 체류 기간 중에도 두 차례 검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 확산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협회는 2024년 3월 '외국인지원사업단'을 발족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결핵 검진에 그치지 않고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전반에 걸친 건강 문제와 다양한 애로사항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전용 특화 이동검진 버스를 도입했는데, 이 버스는 흉부 X선은 물론 초음파와 안저 검사까지 가능한, 말 그대로 '움직이는 병원'입니다. 특히 외국인 종합 건강검진에 특화돼 있어, 앞으로 이 버스를 적극 활용해 외국인 건강관리 사업의 폭을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대한결핵협회 사무총장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새롭게 도약하다

대한결핵협회 외국인지원사업단은 발족 이후 국적에 관계없이 몽골, 스리랑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중국 등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를 대상으로 체류 상담과 한국어·생활 교육, 보건·의료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6월 법무부로부터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되었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보건, 교육,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과 외국인 커뮤니티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앞으로 외국인지원사업단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동포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류 지원과 지역 연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지원사업단은 다른 센터들과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속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며 ‘대한결핵협회에 가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대한결핵협회 외국인지원사업단 직원들

외국인지원사업단은 2025년 법무부로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며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동포 중점기관으로 운영되어 현재까지 39명이 이수했으며, 조기적응프로그램에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약 800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체류 제도, 의료와 안전, 일상생활, 한국 문화 이해 등으로 구성되고, 다국어 안내와 통역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적응을 돕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으며, 다국어 교재와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교육과 제도적 지원은 현장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의 삶을 지키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삶을 돌보는 현장 지원, 따뜻한 공동체를 향한 약속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진행하는 ‘CARE SERVICE’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건강검진을 넘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활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장에 가면 단순히 검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 잠복결핵 검사, 내과·안과 검진은 물론 필요할 경우 정형외과 진료까지 연계해 드립니다. 여기에 푸드트럭이 오거나 체험 부스가 마련되기도 해 검진이 보다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건설 현장에서 실시한 잠복결핵 검진에서는 약 60명의 환자가 발견됐다. 협회의 치료 연계와 복약 지도를 통해 이들은 꾸준히 치료를 이어갔고, 결국 완치 판정을 받아 건강하게 산업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쌓아온 외국인지원사업단은 이제 수도권 동포체류지원센터로서 동포와 외국인의 삶을 더욱 가까이에서 돌보고자 한다.

앞으로는 체류와 법률 상담을 세밀하게 지원하고, 한국어·생활법률·산업안전 교육을 통해 일상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며, 결핵 검진과 예방 교육, 의료비 지원과 같은 건강 관리까지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다국적 커뮤니티와의 협력, 민간·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신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지원사업단이 지향하는 모습은 단순한 행정 창구가 아니다. 이곳을 찾는 동포와 외국인이 안도감을 얻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곁에서 지켜주고, 또 누군가의 오래된 불안을 덜어주는 일. 그 작은 손길들이 모여 결국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믿음, 그것이 대한결핵협회 외국인지원사업단이 품은 가장 큰 목표이자 약속이다.

From Tuberculosis Eradication to a Path of Coexistence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 Foreign Resident Support Division

Founded with the mission of eradicating tuberculosis, the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KNTA) now extends its care to support the lives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By standing alongside those who are often marginalized, the Association has embraced a renewed mission—quietly becoming part of their daily lives and every breath. In 2025,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Division of KNTA was officiall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the Compatriot Support Center.

Paving the Way to Tuberculosis Eradication: 70 Years of Dedicati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November 1953, the Korean National Tuberculosis Association (KNTA) has consistently conducted surveys, research, prevention, and eradication initiatives, making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public health in Korea. As the nation's central institution dedicated to tuberculosis eradication, the KNTA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medical services in this field. Along with 12 regional branches—including the Tuberculosis Research Institute in Osong, Chungbuk—and 10 Red Cross-affiliated clinics nationwide, the KNTA carries out a wide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screening, research, and treatment.

A New Leap Forward: Becoming the Compatriot Support Center

Another key mission of the KNTA is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Among the approximately 2.7 million foreign nationals currently living in Korea, a significant number come from countries with a high prevalence of tuberculosis. They are required to undergo chest X-ray screening upon entry and two mandatory examinations during their stay. Nevertheless, the risk of tuberculosis transmission remains. In response, the KNTA established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Division in March 2024, launching dedicated support services tailored to the needs of foreign residents.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Division of the KNTA offers comprehensive services to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compatriots, including residency consultations, Korean language and practical life education, as well as health and medical support. Building on this found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fficially designated the Division as a Compatriot Support

Center in June 2025. This designation reflects recognition not only of the Division's administrative capabilities but also of its integrated support system encompassing healthcare, educ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It also highlights the Division's strong networks with foreign communities and related organizations, which enable immediate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in the field. In 2025, the Division was further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an implementing agency for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 and the Early Adaptation Program for Immigrants, thereby supporting the stable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On-Site Care for Daily Living, a Commitment to a Warm Community

Going forward, the Center plans to enhance its services by providing more tailored support in residency and legal counseling; equipping foreign residents with essential skills through Korean language education, legal literacy, and occupational safety training; and improving health management through tuberculosis screening, preventive education, and medical expense support. It also aims to expand practical, community-based services by collaborating with multicultural communities and partnering with both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while further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and credibility required to carry out government-commissioned projects.

The vision of the Foreign Resident Support Division extends beyond functioning as a basic administrative office. It aspires to become a comprehensive platform where overseas compatriots and foreign residents can find reassurance and, ultimately,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become healthy, well-integrated members of Korean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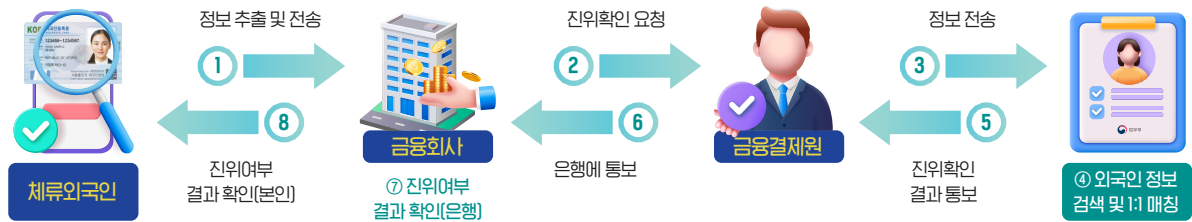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

등록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하고 쉽게 금융거래 가능!

법무부는 금융회사 창구·모바일 앱 등에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려는 외국인을 위해,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와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대조해 진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의 적용 대상을 제2금융권(비은행권)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등록외국인은 비은행권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분증 진위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업무 흐름도



대상 신분증(외국인 신분증 3종)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용 수단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웹(비대면),
각 영업 지점(대면)

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개, 제2금융권 7개)에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 2025년 6월 이후부터 제1·2금융권 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10개 대면·비대면 적용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4개 비대면(모바일 앱/웹) 적용	toss bank, 하나은행, JB우리캐피탈, 웰컴디지털뱅크
6개 대면(영업점) 적용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수협,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MG새마을금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바로가기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 (Hi Korea) 바로가기
www.hikore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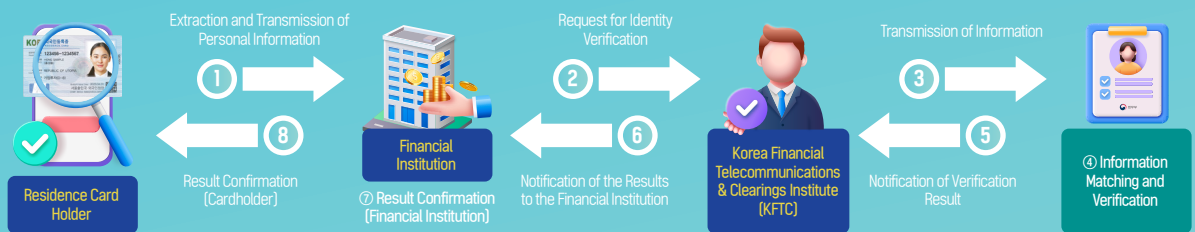
Ministry of Justice × KFTC

Foreign Registration Card Verification Service Expanded to the Non-Banking Sector

Easy and Convenient Financial Services in the Non-Banking Sector Are Now Accessible to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expanded the Foreign Registration Card Verification Service to includ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allowing registered foreign nationals to verify their identity at service counters and through mobile apps. The service checks personal information and facial images from Residence Cards—including Permanent Resident and Overseas Korean Residence Cards—against the Ministry of Justice's database and provides real-time verification results. With this expansion, registered foreign residents can now complete identity verification at non-bank institutions using the same process available at banks.

Operational Flowchart



Acceptable Forms of Identification



↓
Residence Card ↓ Permanent Resident Card ↓ Overseas Korean Resident Card

Means of Access

Mobile apps/web services provided by each financial institution (non-face-to-face)
Branch offices of each financial institution (face-to-face)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s

20 financial institutions (13 banking and 7 non-banking) currently provide the Residence Card Verification Service.

10 Institutions
In-person & Online

Shinhan Bank, Woori Bank, KB Kookmin Bank, iM Bank, BNK Busan Bank, BNK Gyeongnam Bank, Jeonbuk Bank, Kwangju Bank, IBK Industrial Bank of Korea, KB Kookmin Card

4 Institutions
Online
(Mobile App/Web Only)

Toss Bank, Hana Bank, JB Woori Capital, Welcome Digital Bank

6 Institutions
In-person
(Branch Offices Only)

NH NongHyup Bank, SH Suhyup Bank, Suhyup, Mirae Asset Securities, Hana Securities,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www.immigration.go.kr



HiKorea []
www.hikorea.go.kr





광복 80년, 영웅과 후손을 잇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곳곳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일제강점기의 끝을 알리는 그날, 온 국민은 주권을 되찾은 기쁨 속에서 새로운 내일의 희망을 노래했다. 그리고 2025년, 모두가 자유와 미래를 꿈꾸었던 광복 80년을 맞이했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매년,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는 광복 80년을 기념한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생생한 현장 모습을 보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새로운 조국의 품에 안긴 독립유공자 후손들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서는 17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2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했다. 이번에 국적을 받은 후손들은 중국 14명, 러시아 6명, 우즈베키스탄 2명, 미국 2명, 캐나다 2명, 쿠바 1명으로, 세대를 거쳐 조국과 떨어져 있었지만, 그 뿌리를 기억하고 이어온 분들이다. 법무부는 200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21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며,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행사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으로 엄숙하게 시작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규중 광복회 부회장,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국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독립 영웅의 후손인 여러분이 이제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 문화가 융성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 이규중 광복회 부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독립운동가의 자랑스러운 후손들이 누구보다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영상이 상영되며 의미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영상에서 다음과 같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문화를 그려왔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채워갈,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새로운 조국의 이름이 여러분의 일상 속 희망과 자긍심으로 빛나길 기대합니다.”

축사 이후에는 독립유공자와 국적을 새로 취득한 후손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에는 1918년 대한독립선언 39인 중 한 사람인 박찬익, 의병장으로 활약한 차도선,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명순 선생 등 총 17명의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 27명의 이야기와 얼굴이 스크린을 아름답게 채웠다. 영상이 끝난 뒤, 본격적인 국적증서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박찬익 선생의 후손 차준옥 님의 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한 명씩 호명된 후손들이 앞으로 나와 국적증서를 손에 쥐었다. 이 순간, 행사장에는 그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와 희생, 자긍심이 깊은 울림으로 전해졌다.

화려한 축하 무대와 장학 증서 수여

국적 증서 수여 이후에는 한국이민재단에서 후원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된 4명의 후손에게 장학 증서가 전달되었다. 새로운 조국을 품에 안은 후손들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더해지는 뜻깊은 순간이었다. 이어서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물들인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첫 무대는 국방부 군악대의 현악 5중주와 성악 4중창. 국내의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이 선사한 공연은, 독립유공자들이 꿈꾸었던 평화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웅장한 선율로 그려냈다. 이어진 두 번째 무대는 가야금 산조 이수자(전북 무형유산 제 45호)인 조세린 클라크 배재대학교 교수와 국가무형유산 '남해안 별신굿' 이수자인 신승균 교수의 합동 공연이었다. 힘겨운 시절, 희망을 노래하던 독립유공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가야금의 서글프고도 단단한 선율은 행사장을 찾은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전했다.

마지막 공연이 준비되는 동안, 두 명의 후손이 국적을 취득한 소감을 발표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는 정갑이 선생의 후손 텐헤교니 님으로, 현재 러시아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할아버지의 희생을 잊지 않고, 할아버지께서 그러하셨듯 저 역시 러시아에서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의 말을 전했다. 두 번째로 마이크를 잡은 신을노 선생의 후손 원켈 글렌 칼라니 님은 “조부께서 꿈꾸셨던 독립과 자유를 향한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멋진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저의 조국이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벅찬 마음을 담아 소감을 밝혔다.

이후, 축하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공연이었다. 1974년 창단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은 지금까지 130여 개국을 순회하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무대에서도 절도 있는 동작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행사장을 뜨거운 감동과 환호로 물들였다. 단

아한 기개와 화려한 기술이 어우러진 시범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지닌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상 깊은 무대였다.

축하공연이 끝난 후, 행사에 참석한 내외빈과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들이 함께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기념사진의 배경은 독립유공자들의 결의와 꿈이 깃든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그 앞에는 대한민국의 새 국민이 된 후손들이 새로운 태극기를 손에 쥐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밝은 미소는 마치 자유와 평화를 향한 희망의 다음 세대를 보여주는 듯했고, 대한민국의 내일이 더욱 환하게 빛날 것임을 예고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현장에서 만난 후손들의 한 마디!

제80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한 후손들을
만나보았다.

 **허송화**

저는 2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는 허주경 선생님의 증손입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게 너무 좋아요. 국민 모두가 우리를 존중해 주고, 나라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천희**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한 국인이 아니었지만, 저희 가족은 당연히 한 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앞으로 자라 날 아이들을 생각하면 국적 증서 수여가 무척 행 복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증조할아버지와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최니콜**

모두가 국적 수여를 기뻐해 주시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제가 어떤 꿈을 꾸든 대한민국이 저를 응원해 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너무 기대돼요! 고맙습니다.



 **원켈 글렌 칼라니**

너무 감동적이고 영광스럽습니다. 할아버지이신 신을노 선생님은 정확히 70년 전인 1955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셨는데요. 할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투쟁한 나라에 평생 미국 사람으로 살았던 손자가 돌아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안전·교통·미식 외국인이 꼭은 한국 여행의 매력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 한류와 쇼핑, 다채로운 음식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 주고, 안전한 환경과 편리한 교통은 한국만의 특별한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매력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살펴보자.

자료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

중국·일본 중심의 방문객, 한류 효과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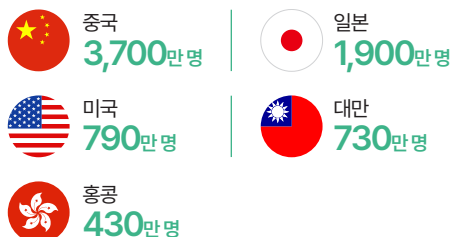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약 1,750만 명에 달했던 외국인 방문객은 2020년 250만 명, 2021년에는 97만 명까지 줄었으나, 2022년 320만 명으로 반등했다. 이어 2024년에는 약 1,640만 명이 한국을 찾으며 팬데믹 이전 수준의 93%까지 회복했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약 720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가장 컸다. 최근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중국 약 3,700만 명, 일본 약 1,900만 명, 미국 약 790만 명, 대만 약 730만 명, 홍콩 약 430만 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은 2024년 약 460만 명으로 회복하며 2018년 수준에 근접했으나, 한한령(중국 내 한류 콘텐츠·관광 제재) 이전의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차이가 크다. 반면 일본인 관광객은 한류 열풍과 저가 항공 노선 확대에 힘입어 2024년 약 322만 명까지 늘어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연간 외국인 여행객 수 추이



10년간 국적별 누적 외국인 여행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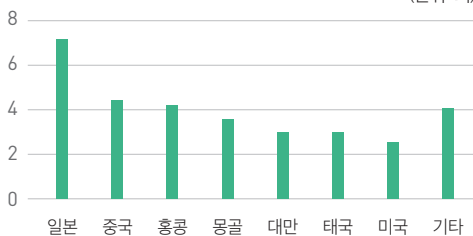
자유여행이 대세, 재방문율도 높아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외래관광객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인접국 비중이 높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균 방문 횟수는 4회로, 일본(7.0회), 중국(4.3회), 홍콩(4.1회), 몽골(3.5회), 대만·태국(2.9회), 미국(2.5회) 순이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일수록 재방문율이 높았으며, 서구권 국가는 평균 2회에 그쳤다. 여행 형태를 보면 개별여행이 80%를 넘어서고, 단체여행은 11.7%, 항공권과 숙소를 함께 예약하는 에어텔은 7.8%로 조사됐다.

방한 계기에서는 한류 콘텐츠가 2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새로운 국가 방문(17.9%), 과거의 긍정적인 여행 경험(13.1%), 한국 전통문화(9.8%), 적당한 이동거리(8.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방탄소년단·에스파 등 K-팝 스타, 면세점의 K-뷰티·K-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이 외국인 관광 수요 확대에 기여했다. 반면 미국인과 영국인은 각각 5~6%만이 한류 콘텐츠와 전통문화를 방문 이유로 꼽아, 국가별 문화 관심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 국적별 외국인 여행객의 방한 횟수 ●

(단위: 회)



외국인 여행객의 방한 계기

- | | |
|-------------------------|-----------------------|
| 1. 한류 콘텐츠
20.2% | 2. 새로운 국가 방문
17.9% |
| 3. 과거 좋은 여행 경험
13.1% | 4. 한국 전통문화
9.8% |
| 5. 적당한 이동거리
8.9% | |

국가별로 다른 선호, 문화 관심도 차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한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활동은 쇼핑(20.6%)과 식도락(18.8%)이었다. 이어 자연 경관 감상(12.0%), 한류 관광지 방문(8.0%), 역사 유적지 탐방(7.9%), 뷰티·미용 관광(6.7%) 순으로 조사돼 체험과 소비 중심의 여행 행태가 두드러졌다. 국가별 선호도에 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일본인은 뷰티·미용 관광(12.8%)을, 인도인은 자연 경관 감상(31.1%)을 특히 선호했다. 반면 영국·미국·독일·프랑스 등 서구권 여행객은 역사 유적지 탐방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행 시 고려하는 인프라 요인으로는 치안(19.0%)과 대중교통(18.3%)이 가장 중요하게 꼽혔다. 이어 여행비용(14.8%)과 숙박시설(11.3%)도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여행객이 한국을 선택할 때 안전성과 이동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외국인 여행객의 지역별 방문 경험은 수도권(88.4%)에 집중됐으며, 그 뒤를 경상도(18.4%), 제주도(9.9%), 인천(6.3%), 강원도(4.9%), 충청도(2.7%), 전라도(2.4%)가 이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교통 인프라와 접근성 부족이 관광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관광 전략에서는 교통 편의성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방한 시 고려한 활동

쇼핑
20.6%

식도락 관광
18.8%

자연경관 감상
12.0%

한류 관광지
8%

역사 유적지
7.9%

방한 시 고려한 인프라 요소

치안
19.0%

대중교통
18.3%

경제적인 여행비용
14.8%

숙박시설
11.3%

관광안내 서비스
5.0%

맛의 융합, 정체성의 공존 ‘아메리칸 푸드’를 다시 보다

북아메리카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 이민자들의 문화가 교차하고 융합된 대륙이다. 그만큼 이 지역의 음식 문화도 다양한 배경과 역사를 품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삶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우리가 흔히 ‘아메리칸 푸드’라고 부르는 음식들 속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선, 복합적인 이야기와 문화의 흔적이 숨어 있다. 지금부터 그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자.

세계의 레시피가 모이는 용광로

‘북아메리카 음식’ 하면 많은 사람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두툽한 패티의 햄버거, 야구장의 단짠한 핫도그, 그리고 큼직한 페퍼로니 피자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몇 가지 음식만으로 북아메리카의 음식 문화를 정의하기에는,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이 너무나 깊고도 방대하다.

북아메리카 음식 문화의 핵심은 종종 ‘멜팅 팟(Melting Pot)’ 혹은 ‘샐러드 볼(Salad Bowl)’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는 단순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전 세계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조리법을 새로운 땅의 식재료와 조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음식 문화를 창조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북아메리카를 만든 이민자들의 음식



1

햄버거와 핫도그(Hamburger & Hot dog)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햄버거와 핫도그. 하지만 그 뿌리는 의외로 독일에 있다. 19세기,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다진 쇠고기를 문쳐 구운 ‘함부르크 스테이크’와 일상적으로 즐겨 먹던 소시지 문화를 함께 가져왔다. 이 음식들은 미국에서 빵과 결합하며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했고, 결국 오늘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햄버거와 핫도그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2

아메리칸 피자(American Pizza)

피자의 본고장은 이탈리아, 그중에서도 나폴리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풍성한 토핑의 피자는 20세기 초 미국으로 건너간 이탈리아 이민자들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했다. 그들은 고향의 ‘나폴리 피자’를 기반으로 하되, 신대륙에서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풍부한 치즈, 페퍼로니, 각종 채소를 아낌없이 올리며 미국 스타일의 피자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이민자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피자는 이제 이탈리아 요리를 넘어, 가장 대중적인 미국 음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3

캘리포니아 롤(California Roll)

‘캘리포니아 롤’은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1970년대 북미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이민자 요리사의 손에서 탄생한 창작 요리이다. 당시 낱생선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현지인들의 입맛과, 검은 김의 낮은 비주율을 고려한 결과물이 바로 이 메뉴였다. 참치 대신 아보카도를, 생선 대신 익힌 게살을 활용하여 스시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전략은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롤은 북미인들에게 스시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문 메뉴로 자리매김하며 세계 곳곳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스시’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



+ 집에서 만들어 보는 북아메리카 음식 +



온 가족이 사랑하는 미국 남부의 맛, ‘맥앤치즈’

‘맥앤치즈(Mac and Cheese)’는 북아메리카 음식 문화의 융합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정식이다. 기원은 유럽이지만, 간편한 조리법과 저렴한 재료 덕분에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고, 지금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대표적인 ‘컴포트 푸드(Comfort Food)’로 자리 잡았다. 크림하고 고소한 치즈 소스가 넉넉하게 감싼 부드러운 파스타는 북아메리카 특유의 따뜻한 감성과 정겨운 식탁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 오늘 저녁, 한 그릇의 맥앤치즈로 북미의 푸근한 일상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 소요 시간: 25분 내외

◎ 난이도: 하(★☆☆☆☆)

◎ 주요 재료: 마카로니 200g / 체더치즈 200g / 우유 400ml / 버터 2큰술 / 밀가루 2큰술 / 소금, 후추 약간

만드는 방 법

- ①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을 넣어 끓인 뒤, 마카로니를 포장지에 적힌 시간만큼 삶아 건져둔다.
- ② 중간 불로 달군 다른 냄비에 버터를 녹인 후 밀가루를 넣고 약 1분간 볶아 ‘루(Roux)’를 만든다.
- ③ 차가운 우유를 조금씩 부으면서, 거품기로 덩어리지지 않게 빠르게 저어준다.
- ④ 소스가 걸쭉해지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이고, 잘게 썰거나 갈아놓은 체더치즈를 넣어 완전히 녹인다.
- ⑤ 치즈가 다 녹으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춘다.
- ⑥ 완성된 치즈 소스에 삶은 마카로니를 넣고 골고루 버무리면 완성!

* 기호에 따라 베이컨 칩을 뿌리거나 빵가루를 올려 오븐에 살짝 구워내면 더욱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2025
AUTUMN
Vol.73KIS
NEWS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법무부 장관, 양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운영 상황 점검

01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9월 19일(금)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보호실 및 종합민원실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지역특화 우수인재 유치 등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지속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성과는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해 준 직원들의 헌신이 있기에 가능하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어서 외국인보호실 등을 방문하여 보호외국인의 생활 여건 등을 점검하면서 “외국인보호시설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부 차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 점검

02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9월 9일(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출입국심사장, 출국대기실, 외국 기업인 전용 심사대 등을 점검하였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출입국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가용한 심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혼잡을 틈탄 국익 위해자 등이 입국하지 못하도록 국경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경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심사관들을 격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민과 외국인 여행객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한 아세안 대사단 간담회 개최

03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이 8월 29일(금) 주한 아세안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정도 단장은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위기 속에 첨단산업·서비스업·농업·돌봄 분야 등에서 아세안 청년 인재들의 역동성과 열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주한 아세안 대사들은 아세안 각국 내 K-컬처의 높은 인기를 언급하며, 한국이 아세안의 중요한 인적 교류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체류 예방,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또한 출입국·이민 정책 분야에서 상호 이해 증진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추진

04



▲ 2025년 9월 15일 외국인 기업인 우대입국심사대 첫 이용객 맞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8월 31일(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정부는 올해 8월 31일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대상으로 우대심사대를 시범 시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일반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05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합법화 조치는 과거 일제 강점기에 빼앗겼던 주권과 민족 정체성을 되찾은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고국에서 타국으로 강제 징용·이주되었던 우리 민족을 다시 포용함으로써 국민과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국에서 가족, 친척과 함께 정착하고자 하나 단순 체류기간 도과 등으로 불안정한 삶을 이어온 동포와 그의 가족들은 이번 특별 조치 기간에 심사를 거쳐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다시 받을 수 있다.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의 주요 내용>

- ◎ 대상: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국적동포와 그의 가족
-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 ◎ 심사 기준: 공중위생(전염병·마약), 국가재정(건강보험료·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

※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출입국·외국인 정책, 이것이 궁금해요!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자.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한외국인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이용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상담 언어: 한국어 포함 20개국 언어* 안내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안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고용변동 신고

#외국인 근로자 퇴사

Q. 함께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최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혹시 고용센터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 기관 모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A.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항 신고는 2014년 6월부터 일원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국 관서와 고용센터 중 한 곳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F-6

#결혼이민 체류자격

#외국인 채용

#외국인 취업 활동

Q. 외국인 채용을 검토하던 중 지원자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 보니 체류자격란에 'F-6'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일반 회사에서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혹은 별도로 확인하거나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정해진 범위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상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서 해당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채용하더라도 출입국 당국에 별도로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절차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복수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국적선택

Q.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저는 몇 년 전 현지에서 딸을 출산했고, 지금은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복수국적이 계속 허용되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A.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을 선택하면서 동시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정출산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15세 이상이면 본인(자녀)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적응 정보

#국내 장기체류

#하이코리아

Q. 한국에 온 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요. 며칠 전 아들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려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몰라 많이 막막했습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들으면 이런 정보를 알려준다고 하던데,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이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교통·통신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를 안내하는 법무부 공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에 장기 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핫클릭!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immigration_1345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출입국 시간여행, 빅데이터 타임머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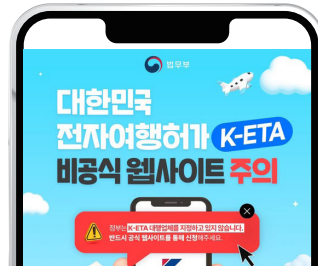
30여 년간의 출입국 데이터를 '빅데이터
타임머신, 출입국 시간여행' 시리즈를
통해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K-ETA 비공식 웹사이트 주의



@immigration.kr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공존 라운지①

독자 이벤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지 <공존> 2025년 가을호를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참여 방법 :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게정 팔로우(구독)!

②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③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채널 공존 이벤트
게시물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혜택 : 독자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2025년 11월 10일(월) 출입국·외국
인정책본부의 인스타그램 or 페이
스북 or 유튜브 게정에서 당첨 여부
를 확인하세요!



공존 라운지②

퀴즈 타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지 <공존> 2025년 가을호를 읽고 퀴즈 이
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호 콘텐츠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Quiz

법무부는 국내 거주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
○○○○' 23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출입국·체류
관련 안내, 동포정책 홍보 및 상담, 국내 생활정보 제공, 동포 네트워
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적응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 | | |
|------------|------------|
| ① 체류지원관리센터 | ② 국내외국민지원단 |
| ③ 동포체류지원센터 | ④ 동포정책연구단지 |

참여 기간 : 2025년 10월 31일(금)까지

참여 방법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정답자 발표 : 2025년 11월 10일(월) 개별 안내



참여하기

하마음

2025 제12회

12th Walk Together Festival in Seoul

서울걷기축제

정부합동 고충상담



2025. 10. 19.(sun) 09:00~13:00

방화근린공원 및 개화산 둘레길

Banghwa Neighborhood Park & Gaehwasan Trail

주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서울건강사회운동본부 주관 서울특별시·서울시립국립공원 (서울특별시·서울시립국립공원) 서울특별시·서울시립국립공원



방화역
2번 출구에서
469m



참가 신청 바로가기